

만 0세 자녀 어머니들의 심리적 변인과 향후 7년 이내 후속 출산 행동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ir follow-up childbirth

저자 (Authors)	진경선 Kyong-sun Jin
출처 (Source)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2) , 2019.6, 175-192(18 page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4(2) , 2019.6, 175-192(1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심리학회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5470
APA Style	진경선 (2019). 만 0세 자녀 어머니들의 심리적 변인과 향후 7년 이내 후속 출산 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24(2), 175-192
이용정보 (Accessed)	성신여자대학교 203.250.150.*** 2020/06/15 14: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만 0세 자녀 어머니들의 심리적 변인과 향후 7년 이내 후속 출산 행동과의 관계*

진 경 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후속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2008년 자료와 8차년도 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1차년도 당시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7년 이내 후속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2008년 당시 만 0세의 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만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들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향후 후속 출산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후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편적인 경제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 어머니 되기로의 생애 전환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어머니, 저출산, 후속출산행동, 심리적 변인,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자녀 가치

* 본 연구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진경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보문로34다길 2

E-mail: kjin@sungshin.ac.kr

“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Demographic (한국의 가장 위험한 적: 인구 구조)”. 뉴욕타임스에 최근 실린 한 뉴스 기사의 제목이다(Lamer, 2018). 한국의 가장 위험한 적은 한국을 둘러싼 여러 복잡한 해외 정세가 아닌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IMF 금융 위기 수습 과정에서 계속 추락하여 2001년부터 1.3명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는 1.08명을 기록하고, 그 후에는 약간 개선이 있었지만, 2017년 1.05명(통계청, 2018), 뒤이어 최근 2018년 0.98명(통계청, 2019)으로 하락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의 기록을 나타냈다.

출산율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의 감소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2019) 자료는 현재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일어나며, 국내 총 인구가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을 예측하였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 생산연령인구(15세-64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반면, 기대 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며,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3차(2016년-2020년)를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우

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국가(OECD)의 평균인 1.7명(OECD, 2019)에 가까운 1.5명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양육 수당 지급, 보육료 지급, 유연근로 확대 등을 포함하여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후속 출산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소 단순한 산술적 계산이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약 1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어떠한 변인이 유자녀 부모가 추가적인 출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후속 출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유자녀 어머니가 앞으로 후속 출산을 할 계획 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왔으며,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사회적 관점에서는 시간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동 과정에서 가족 및 출산에 대한 의미가 변화되거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후속 출산이 감소한다고 본다. 예컨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족의 기능이 변화해 왔고,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송유미, 이제상, 2011). 이러한 관점과 일관적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후속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화하였고(강유선, 김찬우, 2018), 어머니가 자신이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높은 출산 의도를 보였다(이형민, 2012).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 등 경제적 여건이 후속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컨대, 자녀 양육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부담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마미정, 2006). 이러한 관점과 일관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후속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강유선, 김찬우, 2018).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 양육에 대한 심리적 관점, 혹은 양육 경험에 따라 후속 출산 의도가 달라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부부 중심의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혹은 여성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김정미, 양성은, 2013). 또는, 자녀가치, 즉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부모로서의 자신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양은, 하지영, 2016; 이정원, 2009).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강은미, 김승규, 2011; 최미란, 장경은, 2017),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개인 내적인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최향준, 2015),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거나 부부갈등이 낮을수록(배광일, 2015), 어머니가 후속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은 사실 상호배타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후속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윤현수, 오경자, 2010)에서는 사회적 지지(사회문화적 변인)가 저소득 계층 어머니(경제적 변인)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출산 및 양육 경험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 경제, 심리적 변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또한 이러한 유기적 작동이 후속 출산 의사결정이라는 심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심리적 변인은 고려하지 못한 채, 보육료 지원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하여 왔기에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강유선, 김찬우, 2018; 이삼식 외, 2008).

따라서 저출산, 그리고 후속 출산에 관한 연구에 있어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현실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속 출산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후속 출산 관련 연구들의 대다수는 어머니의 후속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왔다(예, 강은미, 김승규, 2011; 배광일, 2015; 최미란, 장경은, 2017; 최향준, 2015). 여성의 출산 의도는 여성의 출산 행동을 비교적 잘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나(Ajzen, 1991; 배광일, 2015에서 재인용), 최근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희망하는 자녀의 수 혹은 출산 의도와 실제 출산 행동 간에 격차가 존재한다(이철선, 2010).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출산 의도에서 나아가 실제 출산 행동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최근 제시된 바 있다(배광일, 2015).

이러한 연구 문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식은 다량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미 수집되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장기 종단 자료인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자료를 사용하

여,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1차년도 자료)과 향후 7년 이내의 실제 후속 출산 여부(8차년도 자료)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총 2,150개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온 큰 표본의 장기 종단 조사로, 가구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인, 부모의 심리적 변인, 그리고 몇몇 해의 경우 아동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된 방대한 자료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만 0세인 1차년도 시기의 어머니들의 자녀 가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향후 7년 이내의 실제 출산 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녀가치란 부모에게 자녀가 갖는 의미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자녀가치는 대표적으로 도구적 자녀가치(부모의 노후 경제적 의존, 가문계승)와 정서적 자녀가치(부모의 노후 정서적 의존, 부부관계 공고화)로 구분된다. 선행 연구에서 자녀 가치는 자녀 수에 대한 의사 결정(Forster, 2000), 그리고 후속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유선, 김찬우, 2018; 마미정, 2008).

이어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갖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97).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특정한 행동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된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은 양육에서 어머니의 높은 민감성과 따뜻함(Teti & Gelfand 1991), 그리고 반

응성(Stifter & Bono, 1998)과 관련을 보인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자로서의 효능감이나 만족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후속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본인의 적응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Silver, Heneghan, Bauman, & Stein, 2006). 후속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가 경험한 양육스트레스가 후속 출산 의도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마미정, 2008; 최순자, 2006; 최향준, 2015),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는 후속 출산과 관련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김기현, 장희경, 1997)도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개인 내적 심리적 변인과 더불어,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또한 후속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며(이정순, 2003),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미영, 2006).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 현재 자녀가 2명인 기혼여성의 후속출산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광일, 2015).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양육 초기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즉 어머니의 자녀가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그리고 부부갈등과 실제 후속출산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부모 중 어머니의 양육 초기 심리적 변인과 후속출산과의 행동을 살펴본 이유는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아버지보

다는 어머니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배광일, 2011).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을 살펴 보기 위하여 종단 자료 중에서도 1차년도 자료(2008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후속출산 중 약 과반수가 패널 아동이 태어나고 2년 안에 일어나므로(표 1) 패널 아동이 영아기일 때의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후속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패널 아동의 동생(들)의 출생 연도 정보가 공개된 2015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98명의 2015년 응답자 중, 710명(44.4%)가 실제 후속출산을 하였다. 이 중, 패널 아동의 첫째 동생은 약 49.4%의 비율로 패널 아동이 태어난 후 2년 안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즉, 후속출산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현재 패널 아동이 영유아기를 벗어나기 이전에 대다수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의 어머니들의 심리적 요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후속출산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후속출산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단 자료 중에서 8차년도 자료(2015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현재 한국아동패널에서 공개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이며, 어머니의 실제 후속출산 여부 및 후속출산이 이루어진 시기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 초기, 즉 자녀가 0세인 어머니의 자녀가치, 자기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그리고 지각한 부부 갈등이 이후 7년 이내 후속출산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나아가, 현재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현실적 제안을 위하여, 전체 패널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전체 데이터 중, 한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도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차년도(2008년) 자료와 8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총 2,150개 가구로, 1차년도 자료는 영아가 태어난 해 혹은 그 다음 해(2009년) 초까지 수집된 자료이다. 2008년도에 출생한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시점인 2015년의 8차년도 조사에는 총 1,598개 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1차년도 참여자의 74.3%가 유지되었다.

2008년 전체 자료($N = 2150$) 중에서 8차년도 설문 미참가자와 측정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1,550명의 어머니들이 최종적인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2008년 당시 어머니들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또한, 전체 분석과 더불어, 총 1,550명의 어머니 중 2008년 당시 한

표 1. 2008년 패널 아동의 첫째 동생이 태어난 연도

연도	N	%
2009	63	8.87
2010	288	40.56
2011	180	25.35
2012	91	12.82
2013	46	6.48
2014	25	3.52
2015	17	2.39
합계	710	100

표 2. 참가자 특성 (N = 1550)

	분류	N	%
어머니 연령	29세 미만	493	31.8
	30세-34세	773	49.9
	35세-39세	257	14.6
	40세 이상	27	1.7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468	30.2
	전문대졸 이상	1082	69.8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	1091	70.4
	취업 및 학업	459	29.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774	49.9
	301만원-450만원 이하	735	47.4
	451만원 이상	41	2.6

자녀를 둔 어머니(n = 723)만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

만 0세 자녀 어머니의 자녀가치 (2008년 자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자녀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삼식 외(2005)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이 중 3문항은 정서적 자녀가치, 그리고 4문항은 도구적 자녀가치를 측정하였다. 정서적 자녀가치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가치관을 의미하며,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적 가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노후의 경제

적 도움을 바라는 등의 가치관을 뜻하며,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이삼식 외, 2005)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5)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가치에 있어서 정서적 혹은 도구적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정서적 자녀가치 Cronbach's $\alpha = .71$, 도구적 자녀가치 $\alpha = .70$ 으로 나타났다.

만 0세 자녀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기효능감 (2008년 자료)

한국아동패널에서는 Mainieri(2006)이 Pearlin, Menaghan, Lieberman과 Mullan(1981)의 연구에서 사용된 효능감의 척도를 수정한 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PSES)을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총 4

개 문항으로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 점, ‘매우 그렇다’ = 4점)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는 ‘삶의 문제들을 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1$ 로 나타났다.

만 0세 자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2008년 자료)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양육 과정에서 수행에 있어 부모가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한국 아동 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척도’ 32개 문항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는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등의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4$ 로 나타났다.

만 0세 자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2008년 자료)

한국아동패널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이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RKMSS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매우 만족(1점)’부터 ‘매우 불만족(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은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1$ 로 나타났다.

만 0세 자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2008년 자료)

한국아동패널에서 부부갈등은 부부의 디스트레스와 이혼의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하는 8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로 답하도록 한 Markman 외(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6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한 정현숙(2004)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척도는 7점 척도였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5점 척도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는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0$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2008년 자료)

후속출산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으로 선행 연구(강유선, 김찬우, 2018)에 근거하여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유무, 가구소득 등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1) 취업 및 학업 중 혹은 2) 미취업의 두 범주로

코딩되었다. 가구소득은 1) 300만원 미만, 2) 301만원-450만원, 3) 451만원 이상의 세 범주로 코딩되었다.

후속출산행동 (2015년 자료)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어머니의 후속출산행동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조사에서 ‘첫째 동생이 태어난 연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후속출산을 하었다고 코딩하고,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후속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코딩하였다.

후속출산계획 (2008년 자료)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주요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초 분석으로 영아기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과 실제 후속출산행동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패널 2008년 조사에서 후속출산계획 여부는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의 문항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은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기타’의 4가지 범위 중에서 고르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기타’ ($n = 3$)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녀가 만 0세 시기인 2008년의 어머니들의 후속출산의도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제 후속출산행동의 빈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살펴보았다. 이후, 2008년도 어머니의 자녀가치, 부정적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그리고 부부갈등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산 행

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후속출산 함(1), 후속출산 하지 않음(0)의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전체 분석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과 이후 7년 내 후속출산행동의 빈도 분석

먼저, 기초 분석으로, 자녀가 만 0세인 2008년의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과 2008년에서 2015년까지 7년 내 후속출산행동의 빈도를 실시하였다.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 중, 27.6%는 후속출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9.5%는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2.8%는 후속출산계획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어머니가 보고한 후속출산행동의 빈도 분석의 경우,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 중 55.6%는 2015년 조사 시점까지 후속출산을 하였고, 44.4%는 후속출산을 하지 않았다.

2008년 만 0세 자녀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응답 별로 2015년까지 후속출산이 실행된 여부의 빈도 분석은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만 0세인 2008년 당시 후속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 중, 84.6%의 어머니는 실제로 2015년까지 7년 내 후속출산을 하였다. 자녀가 만 0세인 2008년 당시 후속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어머니 중, 85.3%의 어머니는 실제로 2015년까지 7년 내 후속출산을 하지 않았다.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

표 3. 2008년 어머니 후속출산계획 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후속출산행동 (N = 1550)

후속출산계획	후속출산 여부	N	%
계획 있음 (N = 428)	출산함	362	84.6
	출산하지 않음	66	15.4
계획 없음 (N = 768)	출산함	113	14.7
	출산하지 않음	655	85.3
잘 모르겠음 (N = 354)	출산함	213	60.2
	출산하지 않음	141	39.8

니들 중 후속출산계획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의 경우, 이 중 60.2%가 7년 내 후속출산을 하였고, 39.8%는 후속출산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빈도 분석은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대하여 비교적 명료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낳거나 혹은 낳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 실제 이 계획이 7년 내 약 85%의 높은 수준으로 시행된 것을 보여준다. 즉, 만 0세의 영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이 이미 앞으로의 후속출산행동을 상당히 근거 있게 예측함을 보여준다. 자녀가 만 0세인 시기 후속출산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경우, 이 중 과반수 이상의 어머니가 실제 후속출산을 한다는 결과는 후속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 초기에 후속출산의도에 대하여 불명확한 집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함의를 나타낸다.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과 7년 이내 후속출산행동과의 관계 분석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요인 중, 향후 7년 내 후속출산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2015년 자료상

후속출산을 하였음(1), 하지 않았음(0)의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확인한다. 즉, 독립변인이 주어졌을 때 종속 변인이 1일 확률을 승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입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그리고 연령으로 나타났다. EXP(B)의 값은 각 요인이 1만큼 증가하는 경우 내부값이 0인 집단(후속출산을 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내부값이 1인 집단(후속출산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결혼만족도가 1단위 높아질수록 후속출산을 할 확률이 1.26배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결과는 2008년에 만 0세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후 실제 후속출산행동이 더 나타날 것을 예측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중, 자녀가치, 자기효능감, 그리고 부부갈등, 사회경제적 요인 중 어머니의 연령을 제외한 취업상태, 그리고 가구소득과 같은 요인은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함께 존재할

표 4. 만 0세 자녀 어머니의 7년 내 후속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 .001$)

		B	S.E.	Wald	유의 확률	Exp (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서적 자녀가치		.075	.128	.342	.559	1.078	.839	1.384
도구적 자녀가치		-.047	.084	.321	.571	.954	.809	1.124
부정적 자기효능감		.072	.109	.432	.511	1.074	.867	1.331
양육스트레스		-.281	.119	5.560	.018	.755	.598	.954
결혼만족도		.231	.108	4.596	.032	1.260	1.020	1.557
부부갈등		-.129	.114	1.285	.257	.879	.703	1.099
연령		-.254	.019	172.138	.000	.776	.747	.806
취업상태(취업 기준)		-.089	.138	.420	.517	.915	.698	1.19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14	.382	.001	.970	1.014	.479	2.145
	450만원 이상	-.050	.377	.018	.895	.951	.454	1.991
$\chi^2(df)$				260.977(10)***		Nagelkerke R ² .225		

때 후속출산행동에 대한 분류예측력이 낮다고 볼 수 있겠다. 모형을 통해 산출된 적합도 (Nagelkerke R²)는 22.5%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당시 심리적 변인으로는 양육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이후 7년 이내 후속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마련 및 사회적 환경 조성에 있어, 영아기 어머니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함의점을 제공한다.

2. 2008년 당시 한 자녀 어머니 분석

추가 분석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 중, 2008

년 당시 한 자녀 어머니(N = 723)만을 대상으로 위의 전체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8년 후속출산계획 및 2015년까지 후속출산 여부의 빈도 분석, 그리고 2008년의 심리사회적 요인 중 이후 후속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만 0세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과 이후 7년 내 후속출산행동의 빈도 분석

먼저, 2008년의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만 0세 한 자녀를 둔 어머니 중, 53.1%는 후속출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4.5%는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32.4%는 후속출산계획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어머니가 보고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후속출산행동의 빈도 분석 결과, 2008년에 만 0세 한 자녀를 둔 어머니 중 75.7%는 2015년 조사 시점까지 후속출산을 하였고, 24.3%는 후속출산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빈도 분석은 만 0세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대하여 낳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실제 이 계획이 7년 내 약 88%의 높은 수준으로 시행된 것을 보여준다(표 5). 이는 전체 분석과 동일한 결과로 보여진다. 2008년 당시 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졌던 어머니의 경우, 전체 분석(85.3%)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56.2%)로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만 0세 한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후속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째 자녀가 만 0세인 시기 후속출산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머니 중 과반수 이상의 어머니가 실제 후속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육 초기에 후속출산계획이 없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불명확한 집단의 경우에 대해 모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만 0세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과 7년 이내 후속출산행동과의 관계 분석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만 0세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요인 중, 향후 7년 내 후속출산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2015년 자료 상 후속출산을 하였음(1), 하지 않았음(0)의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2008년 당시 만 0세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 중 2015년까지 7년 내의 후속출산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은 정서적 자녀 가치와 어머니의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가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후속출산행동을 예측하게 된다. 심리적 요인 중, 부부갈등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 중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예측의 경향성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혹은 어머니가 취업상태일 경우 미취업상태일 경우보다 후속출산을 덜 할 것을 예측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외에도 도구적 자녀가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표 5. 2008년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 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후속출산행동 (N = 723)

후속출산계획	후속출산 여부	N	%
계획 있음 (N = 384)	후속출산함	336	87.5
	후속출산하지 않음	48	12.5
계획 없음 (N = 105)	후속출산함	46	43.8
	후속출산하지 않음	59	56.2
잘 모르겠음 (N = 234)	후속출산함	165	70.5
	후속출산하지 않음	69	29.5

표 6. 만 0세 한 자녀 어머니의 7년 내 후속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p < .001$.

	B	S.E.	Wald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서적 자녀가치	.413	.210	3.863	.049	1.512	1.001	2.283
도구적 자녀가치	.141	.142	.985	.321	1.152	.871	1.522
부정적 자기효능감	.147	.192	.580	.446	1.158	.794	1.688
양육스트레스	.328	.207	2.506	.113	1.388	.925	2.084
결혼만족도	-.064	.186	.117	.732	.938	.652	1.351
부부갈등	-.353	.188	3.528	.060	.702	.486	1.015
연령	-.175	.028	38.451	.000	.840	.794	.887
취업상태(취업 기준)	-.415	.214	3.755	.053	.660	.434	1.00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58	.533	1.009	.295	1.748	.615	4.966
450만원 이상 301-350만원	.530	.527	1.099	.315	1.698	.604	4.773
$\chi^2(df)$			66.796(10)***		Nagelkerke R ² .144		

그리고 부부만족도, 사회경제적 요인 중 가구 소득과 같은 요인은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함께 존재할 때, 후속출산행동에 대한 분류예측력이 낮다고 볼 수 있겠다. 모형을 통해 산출된 적합도(Nagelkerke R²)는 14.4%였다.

논 의

최근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이 약 1.0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의 한 측

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영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변인이 후속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종단 자료를 토대로 만 0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변인과 이후 7년 이내의 후속출산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상태, 그리고 가구소득 중에서 어머니의 연령만이 향후 7년 이내 후속출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후속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이

후속출산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기존 연구(강유선, 김찬우, 2018)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초혼 연령의 상승, 그리고 부모되기로 들어가는 연령의 상승과 같은 사회적 변화(Arnett, 2015)가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관점과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만 0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당시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이후 7년 이내의 후속출산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0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7년 이내에 실제 후속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마미정, 2008; 최순자, 2006; 최향준, 2015),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배광일, 2015)가 후속출산의도를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태어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혹은 결혼만족도의 저하가 실제 향후 후속출산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애 발달의 측면에서 부부의 대부분은 결혼 첫해에 그 이후의 어떤 시기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나, 이후 자녀의 출산과 이에 동반되는 여러 변화로 인하여 저하되게 된다(Lavner & Bradbury, 2010). 이러한 출산 후 결혼만족도의 감소는 다양한 국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Dew & Wilcox, 2011; Lu, 2006). 출산으로 야기되는 여성의 결혼만족도 감소는 여성이 남편과 가지는 양질의 상호작용 시간(quality time)의 감소, 그리고 여성이 지각한 양육과 집안일에서의

불공정함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Dew & Wilcox, 2011). 실제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첫 자녀의 출생 이후부터 가정 내 성역할이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역할 구분으로 회귀하는 패턴을 보인다(Cowan & Cowan, 2000). 또한, 선진국의 어머니들은 양육과 동반되는 늘어난 가사 부담,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전통 사회와는 달리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얻기가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Lamm & Keller, 2007; Rubin & Chung,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출산으로 야기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이후 실제 후속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자녀의 양육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과 더불어 부부간 양육에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의사소통 및 관계의 개선을 돕는 심리학적 지원(김용훈, 이경숙, 홍수중, 2018)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1차년도 당시 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적 변인 중에서는 정서적 자녀가치만이 후속출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 자녀를 막 출산하여 양육 중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는 자녀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향후 후속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능성으로는 첫째 자녀 출산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정서적 자녀가치를 높게 가진 어머니들이 후속출산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을 안

정적으로 경험해 온 어머니들이 정서적 자녀 가치를 더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와 같은 추후 연구는 한국의 둘째 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첫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 혹은 행복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의 측면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1차년도 당시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전체 데이터와는 달리 양육스트레스는 후속자녀출산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첫 자녀 양육의 경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서적 자녀가치가 후속출산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며, 이러한 정서적 자녀가치의 효과가 양육스트레스의 효과를 상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후속출산행동을 예측하는 양육스트레스의 효과가 작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한 자녀 어머니의 경우, 부부갈등의 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함께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경험적 연구에서 충분한 표집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 및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후속출산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크게, 1) 특정한 과제나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일반적 수준(global or general level)의 자기효능감, 2) 양육 자기효능감과 같은 특정 영역의 수행 범위에 대한 중간 수준(intermediate level)의 자기효능감, 그리고 3) 구체적인 상황의 특정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수준(specific

level)의 자기효능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Bandura, 1989). Bandura(1989, 1997)는 중간 수준 혹은 구체적 수준의 자기효능감, 즉,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자녀 양육 영역 및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과제에서의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해당 관련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를 잘 예측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일반적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 장면에 적용되는 효능감을 정교하게 측정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후속출산행동과의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양육 자기효능감(for a review, see Coleman & Karraker, 1997)과 후속출산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사전 조사하여 공개한 패널데이터인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경험적 연구와는 달리 후속출산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패널에서 사용된 척도들이 원 척도에서 다소 수정된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에 있어 주의가 요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개인이 수집할 수 있는 양의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이러한 데이터는 심리학자들에게 분명 좋은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추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러한 패널자료를 사용한 예비 연구를 토대로 정교하게 설계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어머니들의 출산과 양육에서의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고찰하고(설진희,

박수현, 2019; 우영지, 이기학, 2018), 또한 이러한 심리적 경험이 향후 후속출산결정을 포함하여 생애 발달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유선, 김찬우. (2018).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110, 59-84.
- 강은미, 김순규. (2011).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 연구*, 6(1), 67-88.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영. (2006).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은, 하지영 (2016). 여대생들의 출산 및 양육, 자녀가치관을 통해 살펴본 저출산에 관한 이해. *열린 부모 교육 연구*, 8(3), 121-140.
- 김용훈, 이경숙, 홍수중. (2018). 남편 대상 산후우울 개입 상담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609-632.
- 김정미, 양성은(2013).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79-95.
- 마미정(2006). 저출산 시대의 아동양육과 가족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 탐구. *아시아 아동복지연구*, 4(4), 101-122.
- 마미정. (2008).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 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부모교육연구*, 5(1), 75-116.
- 배광일 (2011). 출산 의도 및 출산 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배광일. (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1), 31-53.
- 설진희, 박수현. (2019).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1), 55-77.
- 송유미,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우영지, 이기학. (2018). 취업모의 다중역할 수행 대처전략에 따른 다중역할 경험 및 태도수준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685-713.
- 육아정책연구소. (2008). *한국아동패널 2008 1차년도 데이터*.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panel.kicce.re.kr/kor/index.jsp>
- 육아정책연구소. (2015). *한국아동패널 2015 8차년도 데이터*.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panel.kicce.re.kr/kor/index.jsp>
- 윤현수, 오경자. (2010). 사회적 지지가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73-689.
- 이삼식, 유계숙, 박종서, 이성용, 조영태, 장보현 (2008). 최근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서울: 저출산고령사회 연구회.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

- 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2009). 유아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 도 결정 경로 분석 - 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323-351.
- 이정순.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철선. (2010).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VIP Report*, 24, 1-22.
- 이형민 (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31.
- 정현숙. (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최미란, 장경은 (2017).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4), 53-73.
- 최순자 (2006). 육아불안 구조의 국제비교 - 한국·일본·대만 어머니의 자녀양육 의식을 중심으로: 육아불안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일본 교육학 연구*, 11, 163-176.
- 최항준. (2015). 취업모의 심리변인, 사회적 지원변인, 경제변인 및 자녀(영아)의 기질변인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3, 89-114.
- 통계청. (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19).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rnett, J. J. (2015).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73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New York.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wan, P. A., & Cowan, C. P. (2000). Working with couples during stressful transitions. In S. Dreman (Ed.), *The family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pp. 17-47). Mahwah, NJ: Erlbaum.
- Dew, J., & Wilcox, W. B. (2011). If momma ain't happy: Explaining declines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 1-12.
- Foster, C. (2000). The limits to low fertility: A biosocial approac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 209-234.
- Lamer, B. (2018). 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Demographics.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2/20/magazine/south-koreas-most-dangerous-enemy-demographics.html>

- Lamm, B., & Keller, H. (2007). Understanding cultural models of parenting: The role of intracultural variation and response sty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 50-57.
- Lavner, J. A., & Bradbury, T. N. (2010). Pattern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newlywed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1171-1187.
- Lu, L. (2006).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Stress, resources, and gender differences in a Chinese socie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 471-488.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4.
- Markman, H. J., Stanley, S. M., & Blumberg, S.L.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Jossey Bass, Inc.
- OECD. (2019).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01 April 2019)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ubin, K. H., & Chung, O. B. (2008).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Silver, E. J., Heneghan, A. M., Bauman, L. J., & Stein, R. E. (2006).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0*, 105-112.
- Stifter, C. A., & Bono, M. A. (1998). The effect of infant colic on maternal self perceptions and mother infant attachment.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4*, 339-351.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 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1차원고접수 : 2019. 04. 09.
심사통과접수 : 2019. 06. 19.
최종원고접수 : 2019. 06. 28.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ir follow-up childbirth

Kyong-sun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ir follow-up childbirth. Total 1,550 subjects were selected from a sample of longitudinal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collected in 2008 when their child was under 1 year of age (wave 1) and in 2015 (wave 2),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age,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wave 1 predicted their follow-up childbirth in seven years. Also, for the mothers who had their first child in wave 1, mother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redicted their follow-up childbirth in seven yea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sychologic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policies to increase follow-up birth rate.

Key words : mothers, low birth-rate, follow-up childbirth,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child value